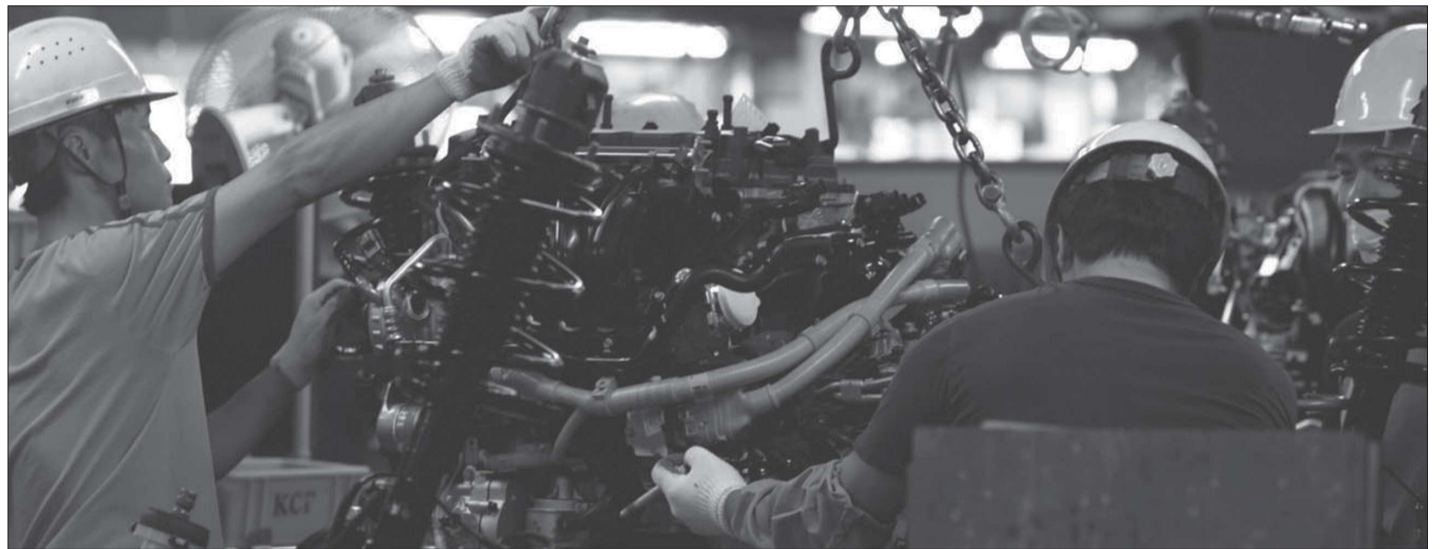


8+9 때 한 것도 모자라 또 UPH-UP하고 단협을 개악하자고?

노사공동위 해체하고 근무형태 변경안 폐기하라!

기아차지부와 화성지회 집행부가 대의원·조합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단으로 노동조건 후퇴를 담은 근무형태 변경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집행부는 5월 15일 지회별 대의원 소집에서 '8+8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 변경안'을 내놨다. 내용의 핵심은 휴일·노조활동 시간·중복휴일 축소 등 단협을 개악하고, UPH UP을 통해 노동강도를 대폭 강화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골병 드는데 노동강도 더는 못 올린다.

2012년 개악보다 큰 폭의 개악

집행부가 만든 1안과 2안은 모두 사측의 생산량 만회 요구를 1백퍼센트 수용하고 있다.

2012년 10+10에서 8+9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때, 기아차는 총 17만 9천 대의 생산량을 보전했다. 그만큼 노동강도가 세졌고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이 대폭 줄었다.

사측은 내년 8+8을 시행할 때, 9만 4천 대의 생산량을 또 보전해 달라고 한다. 완전 날강도다.

그런데 집행부는 이런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2012년엔 전 공장에 30 UPH UP을 했는데, 이번에 또 16~21 UPH UP을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단협상 휴일·조합활동 시간 등을 대폭 줄이고, 2안의 경우 2직은 20분 더 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집행부가 자발적으로 말이다.

이러니 현장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이 '노조의 안이 아니라 사측안'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것이다.

집행부의 독단

대의원소집에서 이 안을 본 대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대의원들은 '이것은 단협 변경사안이고 8/8 근무형태 변경 요구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수차례 항의했지만, 집행

부는 일방적으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민주적으로 대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지금 지부와 지회 집행부는 노사공동위를 지속하며 사측과 교섭을 착착 진행 중이다. 사측은 집행부의 2안에 동의하며, 차기 회의에서 투자계획을 설명하겠다고까지 했다.

이대로 있다가는 악 소리 한번 못 지르고 25년 걸쳐 투쟁으로 쟁취한 단협을 '갈레짝'으로 만들고, 노동강도 강화로 현장조합원들의 고통이 심해질 판이다.

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요구

사측은 생산량을 맞춰주지 않으면 임금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기아차 노조는 생산량 만회 없이 주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킨 바 있다.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2012년 8+9 합의 때부터 이런 원칙이 깨졌다. 노조가 사측의 생산량 보전 논리에 흔들리면서 노동조건이 후퇴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집행부안을

폐기시키고, 사측의 생산량 압박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노동조건 후퇴 없는 8+8을 요구하고 투쟁해야 한다.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차별 없는 8+8을 쟁취하느냐 마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투쟁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위기 타령하는 사측, 그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사측은 1분기 실적이 낮아졌으며, 위기를 조장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려 한다.

그러나 지난해 정몽구와 정의선의 상장주식 보유액만 무려 7조 3천억 원이나 됐다. 지난해 현대차그룹사 사내 유보금은 1백13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돈이면 임금삭감·노동조건 후퇴 없는 8+8 시행과 통상임금 확대,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층에서 항의를 확대하자

지금 집행부의 일방통행에 맞서 독립 공투위를 중심으로 항의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20일 조립 공투위 대의원들은 집행부안 폐기를 위해 조합원 서명과 현장순회, 노사공동위 항의 농성 등을

결의했다. 그리고 5개 공투위에 이와 함께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런 대의원들의 항의는 현장조합원들의 바람을 대변하는 것이다. 더 많은 대의원·활동가들이 함께 동참해 기층에서 투쟁을 조직하고, 집행부의 양보안을 철회시키자.

그리고 대의원대회 개최를 요구해, 그 자리에서 노사공동위 해체와 집행부안 폐기를 결정하고, 통상임금 투쟁과 5·12 신규채용안 폐기도 결정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wspaper.org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문의: 김우용 (기아차 010-3092-9003)



민중광장에 울려 퍼진 분회 조합원들의 함성

불법파견에 면죄부 주는 신규채용 합의 폐기하라

5월 18일 화성공장 민주광장에서 사내하청 분회 조합원 3백여 명이 모여 '신규채용 합의 폐기', '정규직화 쟁취'를 외쳤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모여 분노를 토한 것이다.

분회 조합원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5월 12일 기아차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가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사측과 지부 집행부, 소하 사내하청분회 집행부는 내년까지 4백65명을 신규채용 하겠다고 합의했다. 지난해 9월 25일 법원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지만, 사측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일부 근속만 인정하는 신규채용을 고집했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아 냈다.

이번 합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외치며 투쟁에 나선 분회 조합원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김종석 집행부는 화성·광주 분회가 반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직권조인을 해 버렸다.



더구나 이번 합의는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가 지난해 사측과 체결한 신규채용 합의와 똑같다. 이경훈 집행부의 신규채용 합의는 그동안 노동운동 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기아차에서 똑같은 합의를 하자, 이경훈 지부장은 "역사가 우리의 올바른 길을 입증했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노동운동은 결코 이번 합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활동가들이 앞장서 투쟁의 원칙과 대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화성 사내하청 분회는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하고, 분회 전 조합원에게 '특별교섭 회의록 폐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 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사측과 집행부의 합의안을 폐기시키려면, 항의를 키우며 투쟁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분회 조합원들은 사내하청 투쟁의 만행이라 불리며 강력하게 싸웠던 자랑스런 역사가 있다.

합의안 폐기 서명을 분회 조합원뿐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들로 확대해 지지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사측과 김종석 집행부도 더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정규직 활동가들이 분회 투쟁에 적극 연대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정몽구는 틈만 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 현장에서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서로의 요구를 지지하며 투쟁에 나서야 한다.

통상임금 확대, 임금체계 개악 저지!

협상장에서 나와 실질적인 쟁의를 시작해야 한다

3월 31일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지난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직무성과급제 등 임금체계까지 개악하겠다고 나왔다.

지부장은 사측에 경고를 보내며 단식 투쟁을 돌입했고 4월 20일까지 통상임금 적용하지 않는다면 4월 24일 잔업거부를 통한 8/8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박한우 사장은 이런 결정을 비롯이라도 하듯 4월 20일 개최된 노사공동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였다. 그런데도 지부장은 자신의 결의와 조합원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잔업

거부 지침을 철회했다. '사측이 버스 배차를 하지 않기 때문에 8/8을 할 수 없다', '지부장이 단식 투쟁으로 의지를 보여 주었기 때문에 투쟁을 접어야 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철회한 것이다.

그리고 통상임금 투쟁은 현대그룹 노조연대회의를 통해서 싸우겠다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집행부는 투쟁 약속은 지키지 않고 노사공동위에서 협상을 지속하며 8+8 양보안을 내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이대로 법원의 판결만 한정 없이 기다리며, 8+8 근무형태 변경을 논의하

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통상임금 적용을 우선하지 않으면, 8+8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난다. 나중에 통상임금이 늘어나도 임금 인상 효과가 극히 미미해진다.

김종석 집행부는 이 점을 잘 알면서도, 지난해처럼 현대차 이경훈 집행부의 눈치를 보며 독자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조합원들의 불만이 크다.

더욱이 지금 박근혜 정부는 임금체계 개악과 통상임금 법 개악 등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정몽구 같은 기업주들의

사업장별 임단협을 지원하기 위해 5월 중에 임금체계 개악 가이드라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간을 끌면 끝수록 우리에게 불리하다. 기아차지부 같은 힘 있는 대형 노조들은 앞장서 싸우며 전체 노동자들에게 투쟁할 자신감을 주고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행부는 지금 당장 노사공동위를 해체하고 쟁의를 시작해야 한다. 집행부가 계속 투쟁을 회피한다면, 대의원들이 나서 투쟁의 구심을 세우고 싸워야 한다.